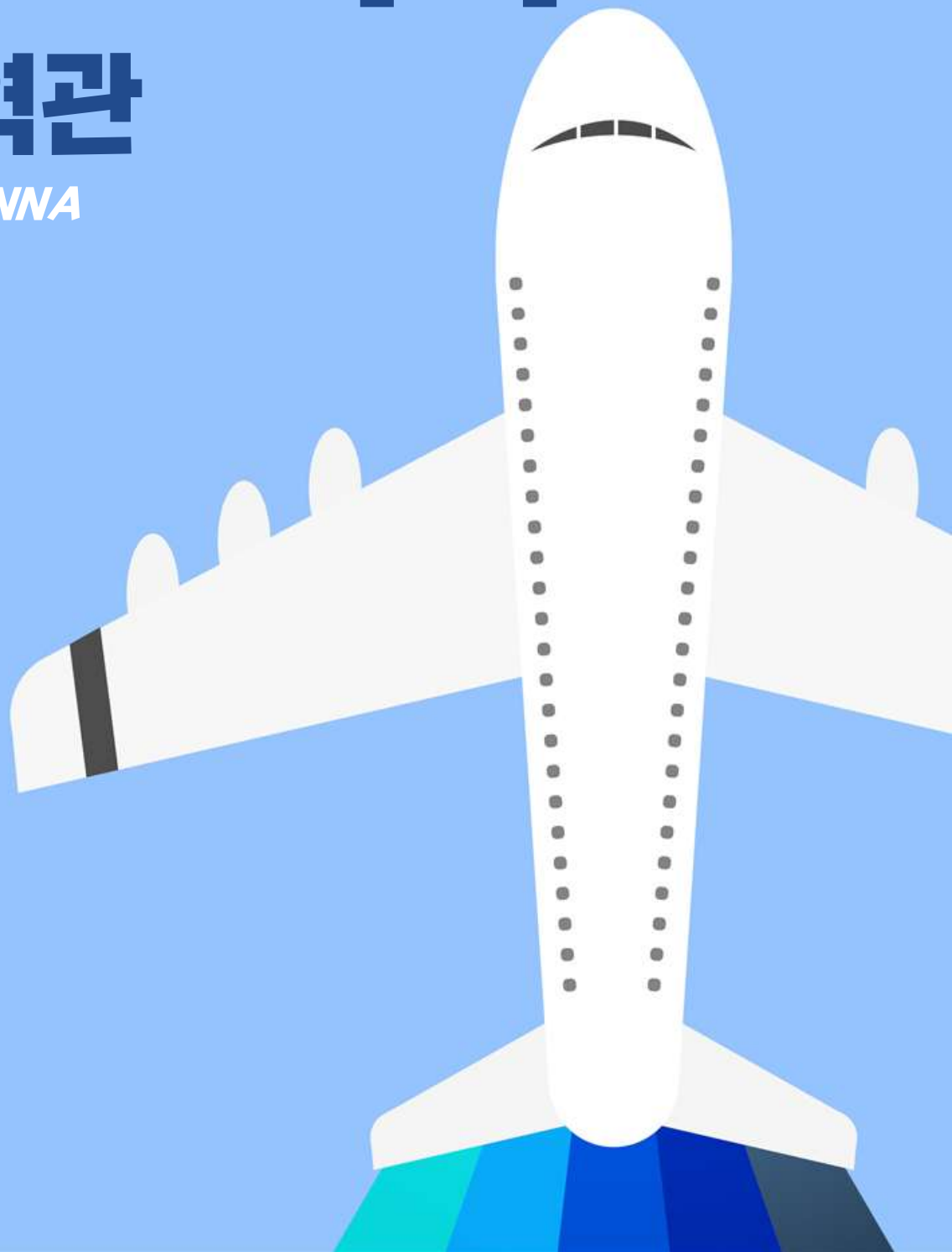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KOTRA VIENN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오스트리아 개황	01
II. 오스트리아 경제 현황	03
III. 오스트리아 교역 현황	06
IV. 한-오 교역 현황	09
V. 한-오 투자 현황	11
VI. 현지 체류 정보	13
VII. 빈무역관 정보	18
VIII. 현지 관광 정보	20

I. 오스트리아 개황

1. 국가 개요

국 명	오스트리아 연방 공화국 (Austria, 獨文 Österreich)
면 적	83,878km ² (대한민국 면적보다 다소 작음)
수 도	빈(獨文 Wien, 英文 Vienna)
인 구	898만(인구밀도 : km ² 당 107.1명)
주요 도시	빈(193만 명), 그라츠(29만 명), 린츠(21만 명), 잘츠부르크(16만 명), 인스부르크 (13만 명)
민 족	오스트리아계 73.0%, 슬라브계 8.2%, 터키계 2.5%, 독일계 2.3%, 기타 14.0%
언 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 57.2%, 동방정교회 8.8%, 이슬람 7.9%, 개신교 3.3%, 무종교 및 기타 22.8%
정부 형태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Alexander Van der Bellen(무소속) (‘17.1.26 취임, 임기 6년 직선제)
총 리	Karl Nehammer(국민당) (‘21.12.6. 취임, 임기 5년 직선제)
교 민	약 2,550명(이중 유학생이 약 700명)

*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대한민국 외교부

2. 경제 지표 ('21년 기준*)

GDP	4,760억 달러
실질 경제성장률	4.5%
1인당 GDP	53,368 달러
GDP구성	서비스업 70.4%, 제조업 28.4%, 농업 1.2%
수출의존도	51%
실업률	6.2%
소비자물가상승률	2.8%
화폐단위	유로(유럽통화동맹 가입국)
환율	1달러=0.85유로('21년 평균 환율 기준)
외환보유고	164억 달러
교역 규모	수출 2,018억 달러, 수입 2,180억 달러
주요 수출국(억 달러)	①독일(597, 29.5%), ②이탈리아(133, 6.6%), ③미국(127, 6.3%)
주요 수출품목(억 달러)	①기계 및 부품(339, 16.7%), ②전기·전자제품(215, 10.6%), ③자동차 및 부품(188, 9.3%)
주요 수입국(억 달러)	①독일(870, 39.7%), ②이탈리아(136, 6.2%), ③ 스위스(106, 4.8%)
주요 수입품목(억 달러)	①기계 및 부품(275, 12.6%), ②전기·전자제품(246, 11.3%), ③자동차 및 부품(207, 9.5%)

* 주 : 수출의존도('20년 기준) 제외

* 자료원 : IMF, World Bank, OeNB 국립은행, WKO 상공회의소, Statistik 통계청

3. 한-오스트리아 관계

☐ 국교 수립 및 체결 협정

- 조·오 수호통상조약(1892)
- 외교관계 수립(1963)
- 무역협정(1971. 10)

- 섬유협정(1979. 6)
- 사증면제협정(1979. 6)
- 항공협정(1979. 7)
- 이중과세방지협정(1985. 12)
- 투자보장협정(1991. 11)
- 과학기술협력협정(2007. 9)
-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2010. 10)
- 워킹홀리데이 발효(2012. 9)
- 산림기술교류협약 양해각서(2012. 10)
- 한-오 문화협력 협정 (2021. 6)

* 주 : 발효일 기준 (한-오 문화협력 협정은 체결일 기준)

□ 교역 규모 및 주요 품목

- '21년 기준 對오스트리아 수출 13억 100만, 對오스트리아 수입 19억 6,4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6억 6,400만)

(단위 : 달러)

년도	대澳 수출	대澳 수입	무역수지 적자
2017	9억 5,936만	16억 1,510만	6억 5,573만
2018	10억 7,718만	18억 1,016만	7억 3,298만
2019	8억 6,480만	15억 5,339만	6억 8,859만
2020	10억 6,600만	16억 2,800만	5억 6,200만
2021	13억 100만	19억 6,400만	6억 6,400만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II. 오스트리아 경제 현황

1. 시장 특성

□ 작지만 강한 대표 강소국

- 오스트리아는 인구 898만의 작은 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

-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 과학 부문에 강점
 - 총 15명(생리학(7), 화학(5), 물리학(3))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 레드불(Red Bull), 스와로브스키(Swarovski) 등 세계적 브랜드 보유

□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 중소기업(종업원 수 250명·매출 50백만 유로 이하)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며,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오스트리아는 116개의 히든챔피언을 보유한바, 이는 독일(1,307개), 미국(366개), 일본(220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임
- * 히든챔피언 :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 50억 유로 이하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 자동차, 환경,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별로 다수의 클러스터(Cluster)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 Magna Steyr(자동차), VoestAlpine(철강), Andritz(기계), Palfinger(건설기계) 등 우수 제조기업 보유
 - 자체 시장 규모가 작고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이유 등으로 인해 소비재, 가전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작지만, 철강, 자동차부품 등 중공업 경쟁력이 매우 강함

□ 활발한 R&D 국제협력

- 오스트리아의 R&D 해외자금 비율은 약 20%로(한국 1% 정도), 높은 R&D 국제협력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높은 R&D 국제협력 성과는 오스트리아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외국 기업의 높은 신뢰도에 기인

□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

- 주요 수출산업은 자동차·기계·의약품 등
 - 자동차의 경우 자체 자동차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적인 완성차 조립업체인 Magna Steyr社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클러스터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여행, 건축, 문화 등 서비스 부문의 수출에도 강점 보유
 - 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수출 비중은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2. 경제 전망

□ 주요 거시경제지표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증감률은 전년 대비)

구분	실질 경제 성장률	실업률*	민간소비 증가율	GDP 대비 재정수지	수출증감 (실질)	수입증감 (실질)
2021년	4.5	8.0	3.3	82.8	12.7	14.5
2022년(전망)	3.9	6.7	3.9	80.0	6.1	4.6

* 주 : 오스트리아 국가 기준

**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재정부(BMF), 경제연구소(WIFO), 통계청(STAT)

- (경제성장률) '22년 3.9% 성장 예상
 - 작년 말 4차 록다운의 경제적 여파 제한적, 건설 및 산업부문 회복세
 - '22년, 팬데믹 안정화 및 전반적 경제호조로 3.9% 성장 전망
- (교역) '22년 수출 전년 대비 6.1%, 수입 4.6% 증가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21년 수출 12.7%, 수입 14.5% 성장
 - 록다운 종료 및 국제경기 호조로 '22년 상반기 산업부문 생산량 증대 추세
- (민간 소비) '21년 플러스 반전 이어 '22년 3.9% 증가 전망
 -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회복 가속화 (리테일, 음식·숙박, 문화 등 서비스 부문 플러스 반전)
 - 경기 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 저축률 하락 트렌드로 민간소비 상승
- (고용) 연내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실업률 6.7% 예상
 - 코로나19 안정화로 실업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 전망
 - 일부 서비스 및 산업부문 숙련 노동자 공급 부족, 경제 성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Ⅲ. 오스트리아 교역 현황

□ 교역 현황 개괄

- '17~'18년 세계 무역 확대 추세에 따라 대외무역 규모 증가 추세
 - '17년 이후 주 교역대상 지역인 EU/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규모 회복
- '20년 코로나19로 수출입 크게 위축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21년 기준, 수출 전년 대비 15.6%, 수입 22.7% 증가

<오스트리아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유로,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 출	1,564	5.1	1,596	2.0	1,483	△7.1	1,715	15.6
수 입	1,640	5.4	1,650	0.6	1,509	△8.5	1,853	22.7
수 지	-76	-	-54	-	-26	-	-139	-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동유럽의 저가 중간재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로 변환, 독일 글로벌 기업에 수출
 -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독일과의 언어/역사/문화적 유대관계, 냉전기 동서 유럽의 가교 역할 경험에 기반, 동유럽 국가와의 산업 격차 활용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독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2021년 기준 수출액의 29.5%, 수입액의 40.1% 점유
- 체코, 슬로바키아 자동차산업 발달로 양국 간 교역 급증(각 4위, 9위 수입국)
- 아시아 수입 비중 : 2021년 기준, 중국 6위(4.3%), 일본 22위(0.7%), 한국 24위(0.5%)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비중 (%)	국가	연도			증가율 '21/'20
			2019	2020	2021	
1	29.5	독일	45,782	44,137	50,515	14.5
2	6.6	이태리	9,822	8,932	11,285	26.3
3	6.2	미국	9,806	9,071	10,748	18.5
4	4.8	스위스	7,338	7,549	8,269	9.5
5	4.0	폴란드	5,444	5,793	6,884	18.8
총계			159,588	148,288	171,460	15.6

* 주 : 순위 및 비중은 '21년 수출·수입 총액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비중 (%)	국가	연도			증가율 '21/'20
			2019	2020	2021	
1	40.1	독일	66,725	61,502	73,589	19.7
2	6.2	이태리	10,569	9,123	11,497	26.0
3	4.9	스위스	6,273	7,807	8,972	14.9
4	4.6	체코	7,257	6,554	8,622	31.6
5	4.4	네덜란드	7,158	6,697	8,218	22.7
총계			165,008	150,935	185,263	22.7

* 주 : 순위 및 비중은 '21년 수출·수입 총액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1년 기준, 상위 5개 품목이 수출액의 48.6%, 수입액의 45.6% 점유
 - (기계 및 부품) Palfinger(크레인), Geislinger(선박부품), Andritz(수력발전설비)
 - 등 교역 주도

- (자동차부품) Magna Powertrain 등 부품기업의 핵심부품(엔진, 파워트레인) 등 독일 완성차 기업에 수출, 완성차 기업 Magna Steyr는 동유럽에서 저가 단순 부품을 수입
- (자동차) BMW,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등 독일 유명 브랜드 수입. 완성차 기업 Magna Steyr, BMW, 벤츠 G-클래스 등 모델 수출
- (의약품) Boehringer Ingelheim 등 독일계 글로벌기업 독일과의 교역 주도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비중 (%)	품목	연도			증가율 '21/'20
			2019	2020	2021	
1	16.7	기계및부품	28,356	25,353	28,655	13.0
2	10.6	전기/전자제품	17,809	16,529	18,164	9.9
3	9.3	자동차 및 부품	17,070	14,451	15,875	9.9
4	7.1	의약품	10,061	10,836	12,182	12.4
5	4.9	플라스틱	6,993	6,568	8,391	27.8
총계			159,588	148,288	171,460	15.6

* 주 : 순위 및 비중은 '21년 수출·수입 총액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비중 (%)	품목	연도			증가율 '21/'20
			2019	2020	2021	
1	12.7	기계및부품	22,020	20,054	23,278	16.1
2	11.3	전기/전자제품	18,990	17,646	20,857	18.2
3	9.6	자동차 및 부품	18,889	15,537	17,501	12.6
4	7.2	석유	12,263	8,250	13,922	68.8
5	4.8	의약품	6,818	6,973	9,085	30.3
총계			165,008	150,935	185,263	22.7

* 주 : 순위 및 비중은 '21년 수출·수입 총액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IV. 한-오 교역 현황

□ 교역 현황 개괄

- '21년 교역 규모는 약 33억 달러(전년 대비 수출 22.0%, 수입 20.7% 증가)
- 한국 주력 수출 분야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 고부가가치 정밀기계(반도체 칩 제조 장비, 사출 기계 등)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
- 완성차 기업 Magna Steyr의 BMW(Z4, 5 Series), MAN사의 트럭(바이에른 본사, 오스트리아 공장 일부 생산) 수입 대폭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
- 팬데믹 여파에도 컴퓨터, 전기자동차, 무선전화기 등 주력 수출 품목 호조로 수출 규모 증가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액	1,077	12.3	864	-19.7	1,065	23.3	1,301	22.0
수입액	1,810	12.1	1,553	-14.2	1,627	4.8	1,964	20.7
수 지	-733	-	-689	-	-562	-	-664	-

* 자료원 : 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 동향

- 일부 품목의 경우, 타 지역 협력업체 수요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
 - * 집적회로반도체·전산기록매체(동유럽 지역 삼성전자 협력업체), 자동차부품(슬로바키아 기아차, 체코 현대차)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컴퓨터, 전기자동차, 무선전화기 등 주력 수출 품목 호조
- '19년 이후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판매 호조로 관련 수출 규모 큰 폭 증가
- 동유럽 현지 국산 자동차 브랜드 협력업체 수요 포함, 자동차부품 실적 5위

- '20년 이후 코로나19 테스트키트 등 분자진단제품 수출급증으로 기타정밀화학 제품, 상위 10대 품목 진입
- 축전지는 대부분 국내 기업 세방전지(로켓 배터리 브랜드)가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대형 유통기업 Banner사에 납품하는 실적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20대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 계	864,944	-19.7	1,065,982	23.3	1,300,632	22.0
1	전산기록매체	103,824	67.9	207,607	100.0	231,773	11.6
2	집적회로반도체	180,658	-14.7	172,634	-4.4	194,314	12.6
3	무선전화기	15,258	2,450.7	31,650	107.4	180,621	470.7
4	전기자동차	57,287	75.3	102,362	78.7	111,260	8.7
5	자동차부품	56,289	-42.0	73,265	30.2	92,848	26.7
6	승용차	93,600	2.0	63,487	-32.2	70,636	11.3
7	의료용전자기기	36,539	-10.0	43,066	17.9	51,688	20.0
8	기타정밀화학제품	1,251	19.3	4,884	290.3	24,805	407.9
9	인쇄회로	21,976	-11.4	23,763	8.1	17,778	-25.2
10	기타 중전 전기 부분품	19,882	45.4	8,618	-56.7	17,736	105.8
11	축전기	13,188	-9.4	13,455	2.0	15,706	16.7
12	축전지	36,759	-58.6	76,718	108.7	15,184	-80.2
13	합성수지	9,917	-1.1	9,826	-0.9	13,294	35.3
14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1,673	-41.1	2,748	64.2	9,390	241.7
15	계측기	5,104	-22.8	5,621	10.1	8,407	49.6
1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19,183	-67.3	8,447	-56.0	8,037	-4.9
17	무선통신기기부품	741	-66.9	913	23.3	7,450	716.0
18	필름류	5,066	-21.6	6,381	26.0	7,182	12.6
19	기타의직물	5,474	3.0	4,312	-21.2	6,812	58.0
20	기타기계류부품	2,010	202.4	7,270	261.8	6,195	-14.8

* 자료원 : 무역협회, 순위는 2021년 기준

□ 품목별 수입 동향

- 승용차는 Magna Steyr의 BMW(Z4, 5 Series), Benz G-Class 수출 실적
- 화물자동차는 독일 바이에른에 본사를 둔 MAN 트럭의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소재 생산법인 한국 수출 실적

- 자동차부품, 엔진 등은 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Magna Powertrain(한-오 합작법인) 등 주요 T1의 한국 수출 실적
- 가축육류(삼겹살), 의약품(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제약회사 대한 수출분)도 꾸준한 실적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5대 수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309,012	-4.8	570,597	84.7
2	가축육류	55,918	13.3	159,633	185.5
3	자동차부품	74,156	39.3	65,941	-11.1
4	의약품	70,777	6.5	63,149	-10.8
5	철도차량	40,774	145.4	50,828	24.7
총계		1,627,17	4.8	1,964,429	20.7

* 자료원 : 무역협회, 순위는 2021년 기준

V. 한-오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투자

- (규모) 전체적인 경향은 소규모 투자(물류, 요식업, 판매법인 등) 중심
- (최근 동향) 대규모 투자로는 삼성 SDI의 Magna Steyr Battery Systems 인수('15년 2월, 총 9,200만 달러 추정) 및 LG 그룹의 ZKW(차량용 조명) 인수('18년 4월, 총 13.4억 달러) 사례가 있음
 - * 삼성 SDI의 MSBS사 인수: 삼성 SDI, Magna International사의 배터리 팩 사업부문 자회사 MSBS(Magna Steyr Battery Systems)사 지분 100% 인수. 인수 금액은 양사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 * LG그룹의 ZKW사 인수: LG전자(주)와 LG(주), ZKW사의 지분 각 70%, 30% 인수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투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신고건수	8	5	15	4	1	3
신고금액	5.9	48.8	1,337.7	4.7	4.4	5.2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오스트리아의 對한국 투자

- (규모)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1,000만 달러 수준
- (최근 동향) 한국 및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하거나 한국 소재 대기업 납품 (Plansse의 삼성전자 납품) 목적의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가 주종
- (주요 기업) Borealis(화학), Geislinger(기계부품), Engel(사출성형기), ALV List(엔진개발), AT&S(반도체 관련), Copa-Data(자동화) 등
- (주요 분야) 기계·부품(6*), 자동화(5), 자동차부품(4), 물류(3) 등

* 주 : 한국 내 잔존 투자금액이 있는 오스트리아 투자기업 수

<오스트리아의 對한국 투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신고건수	6	5	4	6	11	10
신고금액	1.5	8.3	49.6	4.7	25.7	469.0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VI. 현지 체류 정보

1. 현지 체류 참고사항

□ 비자·출입국 절차

○ 비자

- 비자 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해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자 연장은 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 연장 신청을 권장한다.

○ 출입국 절차

- 출입국 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 입국 시 신고 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로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해 세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샘플 등의 경우 이를 확실히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 날씨

○ 대체로 대서양 기후의 영향이 많으나,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겨울에는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연평균기온은 15~18도이며, 강우량은 많지 않으나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 환전

- 시내의 일반 상점 등에서는 달러화나 기타 외국 화폐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유로화 환전이 필요하다. 달러화는 물론 유럽 각국 통화 그리고 일본 및 호주 통화는 시내 어느 은행에서나 환전 가능하다.
- 환전 액수는 무제한이며, 시내 은행에서의 환전수수료는 1.5-2.0% 수준이다. 공항이나 역 근처 환전소 그리고 호텔에서는 3.0~5.0%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시중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 대부분의 선진국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 지폐는 Die Erste Bank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 가능하다.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한국 지폐는 가능하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환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 신용카드 이용

- 관광지 및 대형 상점, 대형 식당이 아닌 일반 상점이나 중소 규모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현금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현지 은행의 직불카드(Bankomat 카드)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상점 또는 식당 이용 시 사전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이후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매장·식당 중 일부는 간혹 10유로 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

□ 전화 이용

- 지하철역 및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있다. 공중전화는 동전투입식과 카드사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다.
- 오스트리아 → 한국으로 통화 시 : 00+82+지역코드+국번 및 전화번호
(단, 한국 전화번호 맨 앞의 0은 뺄 것)
- (예) 010-1234-5678에 전화할 경우 : 00+82+10-1234-5678

- 한국과의 국제 전화료는 분당 250원 정도이며, 호텔에서 사용 시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 교통

- 오스트리아는 교통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로, 특히 수도 빈의 경우 버스, 트램, 지하철 등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망이 매우 발달해 있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7~8시 사이, 17~18시 사이의 시간대를 제외하면 도로 정체가 심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이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을 정도로 시내 교통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 대중교통의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Tabak(담배 가게)이나 지하철역 매표소 혹은 자동판매기 등에서 1회권, 1일권, 2일권, 3일권, 8일권, 1개월권 등 구입이 가능하다. 트램의 경우는 차 내에 승차권 발급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있으나, 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대중교통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 개찰기계(버스, 트램의 경우 자동차 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탑승의 경우 지하철역 개찰구에 설치돼 있음)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 시간과 탑승 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 번만 하면 된다.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동 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트램(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여러 차례 환승이 가능하다.
 -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한다. 가끔 검표원이 탑승해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무임승차 또는 개찰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105유로(지로용지로 2주 내 납부 시 115유로, 이후 납부 시 145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쉽지 않으므로 택시를 타고자 할 때는 택시회사에 전화하여 택시를 부르거나, 대로 주변의 택시 전문 정차장(Taxi 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콜택시 전화번호: 01 40100 또는 01 31300
 - 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번 체계로 나열돼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돼

있으므로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알려 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 가능하다.

- 택시 기본요금은 3.90유로(06:00~23:00, 야간에는 4.30유로)이며, 빈 시내에서 이용 시 보통 10~20유로 정도 소요된다.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 요금에 2.80유로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 빈 등 대도시의 경우 승차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Uber, Bolt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회원가입하고 신용카드 또는 PayPal 계정을 등록하면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대기 시간은 5분 미만이며, 택시 요금 대비 10~20% 정도 저렴하다.

□ 응급 상황 대처 요령

-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 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한다.
- 여권·지갑 분실 시 현지 경찰 및 대사관(+43-1-478 1991)으로 연락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 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 응급 전화번호 - 응급환자 144, 경찰 112, 범죄 신고 133, 화재 신고 122

□ 기타

-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다(3월 말~10월 말 일광 절약제 기준, 동절기는 8시간).
- 전압 : 220 Volt, 50 Hz
- 팁 : 카페, 식당, 택시 등에서는 통상 전체 금액의 5~10%, 호텔에서는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 치안 상태가 좋은 국가여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 역, 시장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2. 대사관 및 유관기관 연락처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 주소 : Gregor Mendel Strasse 25, A-1180, Vienna, Austria
- 전화 : (43-1) 478-1991
- 팩스 : (43-1) 478-1013
- 이메일 : mail@koreaemb.at

□ 대한항공

- 주소 : Objekt 645, 2.OG, Raum 213, A-1300 Vienna, Austria
- 전화 : (43-1) 7007-32515
- 팩스 : (43-1) 7007-32524

□ 한국식당 연락처

식당명	연락처	지역
김치(Das Kimchi)	(43-1)713-3734	빈 3구
코코스(Kokos)	(43)676-523-1412	빈 2구
상상(Sang Sang)	(43-1)587-7941	빈 6구
샤부샤부(Shabu Shabu)	(43-57)333-789	빈 6구
서울식당	(43-1)218-6528	빈 2구
수라(Sura)	(43-1)512-8426	빈 1구
요리(Yori)	(43-57)333-777	빈 1구

VII. 빈무역관 정보

□ 빈무역관 연락처

- 주소 : KOTRA Wien &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 of Korea, Mariahilfer Strasse 77-79/1/3, A-1060 Vienna, Austria
- 전화 : (43-1) 586 3876, 팩스 : (43-1) 586 3876-30
- E-mail : info@kotra.at
- 구글 좌표 : 48.197916, 16.349820

□ 빈 국제공항(Vienn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찾아오시는 경우

- 열차
 - S-Bahn(교외선 기차) S7 노선 및 REX 노선이 공항 철도역 (Flughafen Wien Bahnhof)으로부터 시내 중심 빈 중앙역(Wien Mitte Bahnhof) 역까지 운행된다. Wien Mitte 역에서 바로 지하철 3호선(U3)로 환승 가능하다(Wien Mitte 역까지 20~25분 소요).
 - 역내 유인 매표소는 없으나, 매표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있어 바로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매표기 상 사용언어를 영어로 설정하신 후,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출발역 'Vienna Airport', 도착역 '(Wien) Neubaugasse'를 직접 입력 시 바로 결제 화면으로 이동, 승차권이 출력된다(요금 4.30유로, 현금 및 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 평일 기준 첫차는 04:41, 막차는 01:19에 운행되며(주말은 04:49, 01:19, 기차역 내 확인 필요), 배차 간격은 평균 20분 정도이다.
- * CAT(Wien Mitte 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익스프레스 공항철도)의 경우 공항 철도역에 별도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이후 운행이 잠정 중단 되었으나 '22년 3월 말부터 운행이 재개되었다(Wien Mitte 역까지 16분 소요). 요금은 편도 11유로/왕복 19유로이며, 14세까지 무료 동반 승차가 가능하다. 첫차는 06:08, 막차는 23:38에 운행되며(기차역 내 확인 필요), 배차 간격은 30분이다.

○ 셔틀버스

- 3개의 노선 중 VAL 1 라인(Westbahnhof(서부역)행)을 타고 Westbahnhof에 하차한다(약 40분 소요). 이 곳에서 지하철 3호선(U3) Simmering 방향으로 환승 후, 두 번째 역인 Neubaugasse 역에서 하차해 지상으로 나오시면 무역관이 소재한 Mahu77 건물이 Eurospar 마트 옆에 보인다.
- 셔틀버스 요금은 편도 8유로/왕복 13유로로,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 (<https://tickets.postbus.at/en/ticket/offer>). 첫차는 03:30, 막차는 00:30에 운행되며(공항 내 확인 필요), 배차 간격은 1시간이다.

○ 택시

- Mariahilferstrasse 77(마리아hilfer슈트라세 77)이라고 말하면 무역관이 소재한 Mahu77 건물 앞까지 바로 도착 가능하다(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 : Uber, Bolt 등 해당 앱을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에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예) 택시 : 35~40유로, Uber/Bolt : 28~33유로).

□ 건물 도착 후

- Mahu77 건물 내 Front Desk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시면 우측에 KOTRA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VIII. 현지 관광 정보

□ 명소 안내

벨베데레 궁전 (Schloss Belvedere)



- 오스만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인 오이겐 장군의 여름 별궁. 上宮(Oberes Belvedere)과 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음
- 이 궁전은 1955년 4대 강국의 외무장관이 모여 2차대전 후 10년간의 신탁통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장소임
- 현재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등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화가의 작품을 비롯한 19, 20세기 오스트리아 회화가 전시되어 있음

* 주소 : Prinz Eugen-Strasse 27, 1030 Wien
* 전화 : +43-1-795 57-0
* 홈페이지 : <https://www.belvedere.at>

슈테판성당 (Stephansdom)



-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양식 건축물로 빈의 상징으로 불림
-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 있음
- 사원이 착공된 것은 12세기 중엽이며, 당초의 양식은 로마네스크였으나 화재로 붕괴된 이후 현재와 같은 고딕 사원으로 재건축됨
- 남탑은 계단을 통해 70m 높이의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북탑의 종루가 있는 테라스(60.6m)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음

* 주소 : Stephansplatz 3, 1010 Wien
* 전화 : +43-1-51552 3767
* 홈페이지 : <http://www.stephanskirche.at>

**왕궁
(Hofburg)**



-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으로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 Neueburg로 이루어져 있음. Alteburg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음
- Neueburg(새 왕궁)에는 민속학 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무기·악기박물관이 있음
- 또한 왕궁에는 스페인식 승마학교, 빈소년 합창단이 주일 미사 시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과 신성로마제국의 보물을 전시한 보석박물관 (Schatzkammer)이 있음 (월요일 휴관)

* 주소 : Michaelerkuppel, 1010 Wien
* 전화 : +43-1-533 7570
* 홈페이지 : <https://www.hofburg-wien.at>

**레오폴트 뮤지움
(Leopold Museum)**



- 에곤 쉴레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미술관
- 10개 이상의 박물관이 밀집되어 만들어진 뮤지움스쿼터어 (Museumsquartier)에 속해있음
- 쉴레가 남긴 41개 유화작품과 기타 수많은 수채화 및 소묘가 전시되어 있음

* 주소 : Museumsplatz 1, 1070 Wien
* 전화 : +43-1-525700
* 홈페이지 : <https://www.leopoldmuseum.org>

**쇤브룬 궁전
(Schloss Schönbru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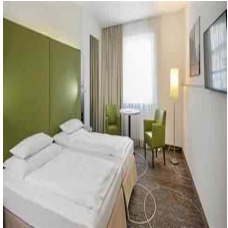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명으로 건축됨
-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방들이 있음. 이 중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 때 여왕 앞에서 연주한 곳으로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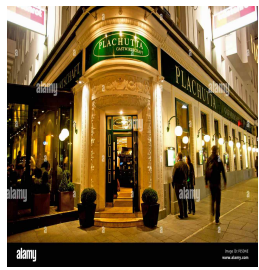
* 주소 : Schoenbrunner Schlosstrasse 47, 1130 Wien
* 전화 : +43-1-811 13-0
* 홈페이지 : <https://www.schoenbrunn.at>

오페라 극장 (Staatsoper) 	-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 - 파리, 밀라노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음 (7, 8월 휴관) * 주소 : Opernring 2, 1010 Wien * 전화 : +43-1-514 44-2250 * 홈페이지 : https://www.wiener-staatsoper.at
우노시티 (UNO City) 	- 1979년에 도나우강 연변에 개관한 유엔기관용 건축물로 이를 계기로 빈은 뉴욕, 제네바에 이은 제3의 유엔 도시로 변모 - 우노시티에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OPEC, 마약위원회, 국제인권문제연구소,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있으며, 현재 5천여 명이 근무 중
케른트너 거리 (Kärntner Straße) 	-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슈테판성당에 이르는 보행자 거리 - 빈 시의 중심가이며 양쪽에 고급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쇼핑가로서 한국의 명동 거리에 해당 - 그라벤, 슈테판스플라츠 등 여러 유적들이 곳곳에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
빈 숲 (Wienerwald) 	- 빈 숲은 위치상으로 알프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km²의 광대한 숲으로서 크게 북부의 숲과 남서부의 숲으로 나뉨 - 인근의 그린칭에는 소위 「호이리게」 (올해의 햇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많이 있음 - 남서부의 숲에는 슈베르트와 인연이 있는 뢰들링(Moedling), 온천지 바덴(Baden), 수도원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Heiligenkreuz), 영화 「덧없는 사랑」의 무대 마이어링(Mayerling) 등이 있음

□ 현지 숙박 정보 (비즈니스 호텔)

호텔명	관련 정보	지역
호텔 아나나스 Hotel Ananas	주소 : Rechte Wienzeile 93-95, 1050 Wien 전화번호 : +43-1-54620 홈페이지 :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nas?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iA_s7fBRDrARIsAGEvF8TWPKvEm1CiCWU-MneYBS7I7WMvNv_Q2go8sjNAvZFUwRUso6gUNvovAvQ5EALw_wcB 	빈 5구
호텔 아나톨 Hotel Anatol	주소 : Webgasse 26, 1060 Wien 전화번호 : +43-1-59996 홈페이지 :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tol?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iA_s7fBRDrARIsAGEvF8SW3jsW1DyPDboOo3ScbQPXNhGFIU5rFhUx 	빈 6구
호텔 아르코텔 빔베르거 빈 Hotel Arcotel Wimberger Wien	주소 : Neubaugürtel 34-36, 1070 Wien 전화번호 : +43-1-521650 홈페이지 : https://wimberger.arcotel.com/en/ 	빈 7구
호텔 플레밍스 (컨퍼런스 빈) Hotel Flemings (Conference Wien)	주소 : Neubaugürtel 26-28 - A, 1070 Wien 전화번호 : +43-1-227370 홈페이지 : https://www.flemings-hotels.de/conference-hotel-wien 	빈 7구

□ 현지 식당 정보

식당명	관련 정보	지역
휘글물러 FIGLMÜLLER	* 오스트리아 대표 전통 음식인 슈니첼(Schnitzel) 전문 식당 주소 : Wollzeile 5, 1010 Wien 전화번호 : +43-1-512 6177 홈페이지 : https://www.figlmueллер.at/en/ 	빈 1구
그리헨 바이즐 Griechenbeisl	* 빈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550여 년의 역사 보유 주소 : Fleischmarkt 11, 1010 Wien 전화번호 : +43-1-533 1977 홈페이지 : https://www.griechenbeisl.at/ 	빈 1구
피아리스텐 켈러 Piaristenkeller	*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 주소 : Piaristengasse 45, 1080 Wien 전화번호 : +43-1-406 0193 홈페이지 : https://piaristenkeller.com/ 	빈 8구
플라후타 Plachutta	*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인 타펠슈피츠(Tafelspitz) 전문 식당 주소 : Wollzeile 38, 1010 Wien 전화번호 : +43-1-512 1577 홈페이지 : https://www.plachutta.at/ 	빈 7구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